국토계획
pISSN: 1226-7147, eISSN: 2383-9171
https://doi.org/10.17208/jkpa.2026.10.61.5.105
Check for update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61, No.5 (202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61권 제5호 pp.105-124

일상활동 공간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 분석*

: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Co-presence with Foreign Residents and Psychological Reassurance in Daily Activity Spaces

: A Case Study of Immigrant-Dense Neighborhoods in South Korea

허재석** · 임보영***
Her, Jaeseok · Im, Boye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co-presence with foreign residents and psychological reassurance in daily activity spaces within immigrant-dense neighborhoods. Data were collected by a professional survey firm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23. Of the 506 respondents, 503 with valid activity-space data—295 native Korean residents and 208 foreign residents—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Survey-based indicators of potential co-presence and usage frequency were constructed across four activity-space types and five time block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reassurance were examined using ordinal logistic regression with respondent-clustered standard errors. Foreign resident statu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reassurance in the proportional-odds model (OR=6.175), although the magnitude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given differences in survey mode and sample selection. The interaction model provided evidenc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potential co-presence and reassurance varied across activity-space contexts. In public spaces, an increase of 0.10 from the median level of potential co-presence corresponded to a 5.9% increase in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reassurance, although this pattern remained exploratory after adjustment for multiple comparis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ily activity-space contexts, particularly public spaces,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in policies and research concerning immigrant-dense neighborhoods.

주제어 외국인 밀집지역, 일상활동 공간, 공존 가능성, 심리적 안정감,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Keywords Immigrant-Dense Neighborhoods, Daily Activity Spaces, Potential Co-presence, Psychological Reassuranc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 3,626명(2024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공표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5a).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84만 5,074명)와 서울특별시(45만 888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전남(10.5%), 울산(8.9%), 경북·충남(각 8.8%)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5b). 이러한 지역

* 이 논문은 건축공간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2023-6)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Assistant Research Fellow,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jsher@auri.re.kr)
*** Associate Research Fellow,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byim@auri.re.kr)

적 확산 양상은 외국인 주민의 거주가 수도권 대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 논의 역시 외국인 유입·관리에서 지역 정착 지원, 주민 간 관계 형성 및 생활환경 관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법무부, 2022; 법무부, 2023; 기획재정부, 2024).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이민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2023년 28개 지역에서 2024년 6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법무부, 2022; 법무부, 2023; 기획재정부, 2024).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정책 명칭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을 사회적으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변화에 따라 향후 외국인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 2024).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외국인 주민의 유입과 정착 범위의 확대와 맞물리며, 지역별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서 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중소도시로도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밀집지역은 대개 출신국별 네트워크 형성 등 자생적 필요에 따라 형성되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낙후된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하성규 외, 2011; 정현주, 2020). 이로 인해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질적 거리 경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부 내국인들에게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었다(김도원·변재욱, 2021).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문제를 범죄나 불안감 등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집단 간 인식차이와 관계 형성, 공간적 분리와 같은 사회·공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은 지역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지역사회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의 주거지는 내국인과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며, 이는 내국인과의 물리적 접촉 기회를 줄이고 정착국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윤진희 외, 2014). 이러한 거주지 분리는 외국인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하성규 외, 2011).

외국인을 포용하는 도시환경 조성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의 전환기에 필요한 과제로서, 외국인 밀집지역 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구체적 활동공간에서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관련 연구는 집거지 형성이나 밀집지역의 물리환경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윤진희 외, 2014; 하성규 외, 2011; 김희철·안건혁, 2011; 정지은 외, 2011; 이진영·남진, 2012). 최근에는 통신사 데이터 등 다양한 개인 단위의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활동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홍성연·최진무, 2016), 이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시공간적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허정원·장주영, 2020; 홍성연, 2021). 그러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공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으며,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시공간적 분리에 따른 공간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등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집단 간 분리도가 심화될 경우 거주민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경계심이 발생하고, 나아가 부정적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보영 외, 2023).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일상활동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에서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공간 기반의 접근은 거주지 중심의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경험의 맥락을 일상활동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홍성연·최진무, 2016).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 생활공간에서 외국인의 공존 가능성이 공간별 심리적 안정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외국인 공존 가능성은 '대면 접촉의 질'을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 공간 유형 및 시간대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다.

한편 외국인(이주민) 집단은 단일한 동질 집단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국적, 언어,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집단 내부의 경계나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Bontenbal, 2023). 즉 외국인 간에도 서로를 타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을 고려하여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이 생활공간별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 생활공간의 분리 및 공존 가능성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3장은 분석의 틀을, 4장은 내·외국인의 생활공간별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련성을 횡단면 설문 기반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요약 및 다문화·다인종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일상활동 공간에서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각 공간에서의 공존 가능성이 심리상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심리 상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 연구에서 활용하는 범죄 두려움, 불안감 등(노성훈, 2013; 권연화, 2024; 허재석·임보영, 2025)이 아닌 체감하는 인지적 안전감, 편안함, 안심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상활동 공간의 이용 양상과 각 공간에서의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일상활동 공간에서 외국인 집단 공존 가능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공간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사회적 자본

외국인의 유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이미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한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국가는 이민자 정착 과정이나 사회 동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Massey and Denton, 1985; Portes, 1995).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정지은 외, 2011).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는 외국인의 국적, 체류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박세훈·정소양, 2010; 하성규 외, 2011; 정지은 외, 2011; 김명조·이제승, 2024). 이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은 서로 밀접하게 거주하며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고, 특정 체류 유형(유학생, 노동자 등)에 따라 생활 패턴과 요구되는 거주 환경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상당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인근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김윤경 외, 2014). 그러나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선호함에 따라 이러한 밀집지역은 종종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와 거주지 간의 직주분리가 심화되며, 지역사회 내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준 외, 2021).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이 동일한 인종 및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는 정주국의 내국인과 분리된 주거지를 조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조현미, 2006; 하성규 외, 2011; 박찬영, 2020; 손정렬, 2024). 외국인 증가는 지역 내 공동체성과 비공식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해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임보영 외, 2023). 아울러 외국인의 집단화로 내국인과의 자원 경쟁 관계가 형성되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Campbell, 1965; Blalock, 1967; 윤진희 외, 2014; 허권, 2021).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은 소수 집단으로서의 외국인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외국인의 집단화가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Bohon, 2001; Borjas, 2002; 정현주, 2020; 전성윤·전희정, 2024). 또한 외국인이 이주하면서 주택시장 등 경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Fischer, 2012; Mussa et al., 2017; Sanchis-Guarner, 2023).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이주자의 정착, 네트워크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자원 경쟁, 낙인, 불안 등 부정적 인식이 동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밀집지역'이라는 거시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생활하는 일상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자본 논의가 제시하는 신뢰, 규범, 비공식 통제 등의 메커니즘은 지역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공간 단위의 경험과 연결해 실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집단 간 인식 수준과 공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생활공간과 이용행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은 정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적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집거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외국인 집거지의 공간적 분리와 집중은 다양한 조건(체류자격, 노동시장, 주거비용, 네트워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하성규 외, 2011; 정현주, 2020). 이에 많은 연구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리, 특히 주거지 분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정지은 외, 2011; 하성규 외, 2011; 이진영·남진, 2012; 윤진희 외, 2014; 손정렬, 2024). 이후 주거 공간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 공간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일상활동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오아름·유현정, 2009; 최병두, 2009; 권유홍, 2011; 이혜경, 2012).

일상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공간은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이다(최병두, 2009). 특히 이주자가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위해 생활공간의 역할이 크다(오아름·유현정, 2009; 최병두, 2009; 권유홍, 2011; 이혜경, 2012).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소비, 여가공간 등 구체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오아름· 유현정(2009)은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비공간에 대한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제약이 많은 신분 특성상 노동 이외 제한적이며 열악한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타자의 공간'으로 편입되는 과정, 그리

고 사회적, 경제적 제약에 따라 다양한 일상생활공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최병두, 2009). 소비공간과 함께 이주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중요한 여가공간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은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적 범위가 좁고, 실내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유홍, 2011).

한편 일부 연구는 외국인의 생활 및 활동공간을 특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혜경(2012)은 외국인의 생활공간을 주거, 소비, 여가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승은(2018)은 산업 및 상업시설, 체류지원시설 등을 일상활동 공간으로 구분하고 해당 공간에서의 이용행태 및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체류(비자) 유형에 따라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정도가 상이했으며, 주요 생활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역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혜경, 2012; 이승은, 2018). 이는 체류 자격에 따라 개개인이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활동 내용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혜경, 2012; 이승은, 2018). 비교적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E-9 비자의 노동자는 집거지의 밀집도가 높지 않고, 기존 상권과 융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계 중국인 중심의 H-2 비자 동포는 집거지 밀집도가 높아 자국 동포 간 교류가 활발하나 독자적 상업 공간을 형성하는 폐쇄적인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승은, 2018).

이와 같이 생활 및 활동 공간에서의 분리 정도는 주거지역의 분리와 또 다른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 주거지 분리와 함께 생활 및 활동 공간에서의 사회적 분리 현상이 이어진다면 도시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양한 집단이 어우러진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공간에서 계층, 집단 간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홍성연·최진무, 2016). 그럼에도 많은 연구가 특정 공간을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거주지 기반 분리와 활동 기반 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적 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에서의 집단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간대에 따른 활동 리듬 차이는 분리 및 공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활동 공간을 공간적 유형과 활동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 간 경험의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외국인 생활공간의 분리 및 접촉과 이용자 인식

앞선 외국인 생활공간 관련 선행연구는 공간적 분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시간대별 계층이나 집단 간 또는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형준 외, 2021). 이에 최근에는 개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자료 등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 단위의 활동공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홍성연·최진무, 2016).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인 단위에서도 앞서 집거지의 분리 현상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적 분리 패턴이 나타났다(홍성연, 2021; 허정원·장주영, 2020). 내·외국인의 시공간적 분리는 지역별 상이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생활방식이나 활동 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홍성연, 2021; 허정원·장주영, 2020). 실제 인종에 따른 활동공간의 차이는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는 결과도 있었다(Park and Kwan, 2018; Järv et al., 2015).

그러나 개인단위의 시공간적 분리 현상은 단순히 내·외국인의 차이보다는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라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었다(김형준 외, 2021). 또한 특정 시기 및 시간대에서 이러한 분리 정도는 완화되기도 하며, 실제 거주지의 분리보다 실제 활동공간에서의 분리는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Silm and Ahas, 2014).

이러한 집단 간 시공간적인 분리는 장소의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서 심화되거나 완화될 수도 있으며, 직간접적인 차별에 노출되는 외국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최우성 외, 2021; 김형준 외, 2021). 시공간적 분리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김형준 외, 2021).

이처럼 외국인의 생활공간은 시공간적 분리현상이 나타나며, 특정 시기나 지역에 따라 분리도가 완화되기도 하지만 심화되기도 한다.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된 이후 분리 및 집중화되는 특성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하성규 외, 2011; 윤진희 외, 2014; 허권, 2021). 이러한 분리 및 집중화 현상은 도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슬럼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정현주, 2020). 또한 내·외국인 간의 시·공간적 분리 현상은 두 집단의 물리적 접촉 기회를 줄이며(윤진희 외, 2014), 나아가 상대 집단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불안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임보영 외, 2023).

실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내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화, 2008; 민지선·김두섭, 2013; 박신영 외, 2012; 강수진·서원석, 2018). 김지선 외(2019)는 수도권과 함께 경남 및 충남 지역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식을 함께 분석하였다. 권연화(2024)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0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취약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였으며, 허재석·임보영(2025)은 수도권 및 지방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부정적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타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긍정적 태도로 변할 수 있다(Allport, 1954; Tropp and Pettigrew, 2005; 김

석호 외, 2009; 송유진, 2013). 특히 반복적인 접촉과 함께 중요한 요인은 접촉의 질이며, 단순한 접촉이 아닌 타 집단과의 차별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양질의 접촉은 상대 집단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송유진, 2013).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집단 간 시공간적 분리가 주민 인식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주거지 단위의 분리나 범죄두려움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 일상활동 공간에서 나타나는 내·외국인의 공간 이용 양상과 공간별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공간 이용 맥락에서 집단 간 이용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내·외국인의 심리적 인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형성되나, 집거지 형성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생활공간에서의 외국인 집단의 공존 및 분리 기회와 결합해 이용자의 인식(안심감, 불안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Tropp and Pettigrew, 2005; 김석호 외, 2009; 하성규 외, 2011; 송유진, 2013; 정현주, 2020).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활동공간의 단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간 이용 양상과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심리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중심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간단위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의 관련성을 공간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룬 수도권 지역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특히 최근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중소도시를 연구 대상지로 포함하여 다양한 도시에서의 내·외국인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활공간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공간에서의 이용 여부 차이에 따른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을 지수화하여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요 생활공간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에 따른 공간별 인식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는 수도권, 특히 주거 공간의 분리에 치우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간, 내·외국인간 비교를 통해 종합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간, 생활공간별, 내·외국인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주거지 중심의 공간 분리를 생활공간으로 확장하고, 개인 단위에서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간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도시 및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Ⅲ. 분석의 틀

1. 분석 대상지 설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체적 공간에서의 이용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중 선정하였으며,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과 함께 지방 도시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지 선정은(1단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준(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 시·군·구)을 적용하여 1차 후보 지역을 도출하였다(행정안전부, 2025a). 이후(2단계) 5년간(2016~2021년) 외국인 주민 수 및 증감률을 검토하여, ① 외국인 주민 수/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과 ② 외국인 주민 수 또는 비율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을 2차 후보 지역으로 도출하였다. 끝으로(3단계) 외국인 주민 인구 특성(체류자격, 국적 등)과 도시 특성(입지, 규모, 주요 산업 등)을 함께 고려하고,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및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한 자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군의 유형 대표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조사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Figure 1).

첫 번째 연구 대상지인 관악구 신사동 일원은 대표적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외국인 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지인 가리봉동이나 대림동과 달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임보영 외, 2023). 2021년 기준 관악구 신사동 외국인 주민 현황은 4,872명, 외국인 주민 비율은 21.5%이다(국가데이터처, 2026).

기존 선행연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산업단지 인근 일자리 중심의 저렴한 주거지역인 반면, 관악구 신사동 일원은 단순 일자리를 위한 거주지 선택이 아닌 정주의 목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외국인이 이주하여 형성된 지역이다(임보영 외, 2023). 신사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인구의 비율이 13.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외국국적 동포(2016년 대비 2021년 인구 1.26배 증가), 유학생(2016년 대비 2021년 인구 2.53배 증가) 등의 인구 증가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일자리보다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임을 설명해준다(국가데이터처, 2026).

두 번째 연구 대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일원이다. 김해시는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2021년 기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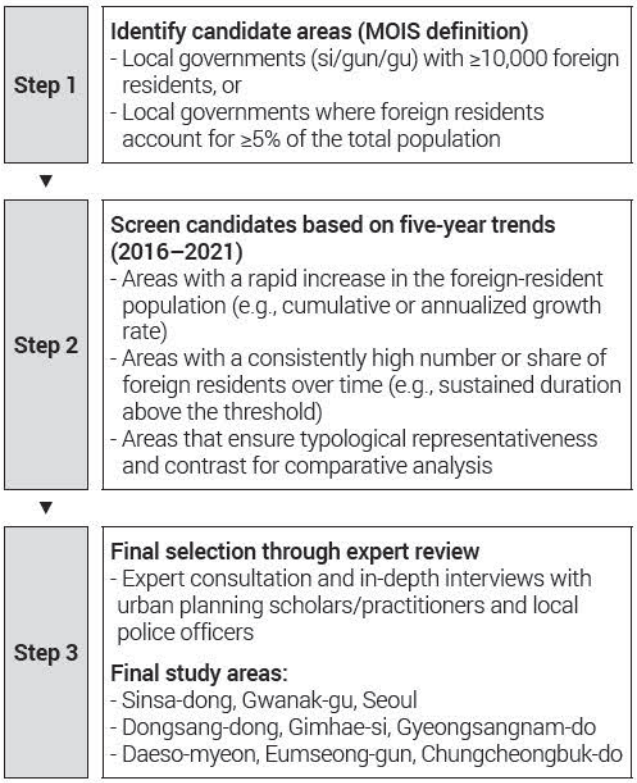


Figure 1. Flow of study area selection

다. 김해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초기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유입되었으나, 점차 오랜 기간 정착하는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구 역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임보영 외, 2023).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 주민 현황은 2021년 기준 1,371명이며, 외국인 주민 비율은 14.7%이다(국가데이터처, 2026).

마지막 연구 대상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일원이다. 음성군은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나 외국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음성군은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달리, 지배적인 국적 외국인이 없는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임보영 외, 2023). 2021년 기준 음성군 대소면 외국인 주민 현황은 4,369명, 비율은 28.0%이다(국가데이터처, 2026).

2. 분석의 공간적 · 시간적 범위 설정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의 이용 특성(여부)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요 일상활동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일상활동 공간은 일상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행태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이 일상적으로 공존하며 교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이혜경, 20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일상활동 공간 4가지이며, 세부 공간의 구분은 국가교통조사 중 여객통행실태조사의 통행 목적을 참고하여 소비공간, 여가공간, 노동(업무)공간과 해당 공간을 연결하는 공공공간(보행로, 공원, 광장 등)으로 설정하였다(한국교통연구원, 2021; 오병록, 2014).

공간 유형의 구분은 개별 시설의 물리적 형태 자체보다는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생활필수품의 확보, 일반적인 상업적 소비행위가 중심이 되는 공간은 소비공간으로, 휴식·친목·취미·개인적 시간 활용 등 여가적 체류와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공간은 여가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생계 및 일상적 업무 수행이 중심이 되는 공간은 노동(업무)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공간은 보행로·도로·공원·광장 등과 같이 각 생활공간을 이동·연결하면서 보행, 통과, 체류가 이루어지는 개방적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공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일상적 마주침과 시각적·물리적 공존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도 관련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연구는 거주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주거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접촉 가능성은 낮은 공간으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Table 1).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상활동 시간으로, 24시간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중은 출퇴근 시간대인 09시와 18시를 기준으로 전후 활동의 양상이 달라지며, 주말은 주간 시간대인 09시부터 18시에 일상적 활동이 가장 발생한다(이금숙·박소현, 2018; 서울특별시, 2019). 또한 일상활동의 척도로 일부 참고할 수 있는 생활 인구 역시 출퇴근 시간대인 09시와 18시를 기준으로 전후 시간대를 분류하며, 낮 시간대를 12시와 15시 전후로 분류하여 행태 특성을 파악한다(조월 외, 2021).

본 연구는 일상활동 시간대를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4시간을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시간대 구분은 일상활동이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09~18시)와 그 외의 시간대를 구분하고,

Table 1. Description of daily activity spaces

Space	Description
Consumption space	Markets, supermarkets, grocery stores, clothing shops, restaurants, and surrounding commercial streets or areas
Leisure space	Spaces for hobbies or conversations with close acquaintances, such as shelters, sports facilities, libraries, cafés, or spaces for individual activities like religious practices
Work space	Workplaces such as factories, farms, offices, and other routine work-related places
Public space	Parks, plazas, streets/sidewalks, and other public areas used for walking, passing through, or staying

주간 시간대는 주중 및 주말의 활동 차이가 나타나는 시간대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통근 및 야간활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주중과 주말의 일상적 리듬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T1: 00시~09시, T2: 09시~12시, T3: 12시~15시, T4: 15시~18시, T5: 18시~24시이다(Figure 2).

3. 분석 방법

1) 심리적 안정감 측정

기존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심리 상태를 주로 정서적 반응 중심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으로 측정해 왔다(이선화, 2008; 민지선·김두섭, 2013; 박신영 외, 2012; 강수진·서원석, 2018). 이러한 정서적 반응(두려움, 불안감 등)은 인지적 수준(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과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노성훈, 2013). 이에 외국인 밀집지역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정서적, 인지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어(권연화, 2024), 단일한 개념만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활용하는 범죄두려움을 포괄하는 접근이 아닌, 생활공간 단위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인식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reassurance)'은 각 생활공간에서 걱정이나 불안감이 완화되고 개인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 편안함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Fotios and Castleton, 2016; Fotios et al., 2019; Uttley et al., 2024). 이는 야간 조명환경에 따라 인지되는 보행자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는 인지된 안전감(perceived safety), 범죄 두려움(fear of crime)과 구분 또는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Fotios et al., 2015; Fotios and Castleton, 2016).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주거지'가 아닌 다양한 집단과의 마주침이 발생하는 '일상생활공간(소비, 여가, 업무, 공공 공간)'에서의 거주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생활공간에서 외국인과의 공존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집단과 마주침으로 인한 불편감, 긴장감의 변화와 관련성이 높다. 집단 간 접촉은 편견을 낮추는 과정에서 불안 감소가 핵심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다수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주장해왔다(Pettigrew and Tropp, 2006; Stephan, 2014). 이러한 접근은 공간환경 설계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불안감이 아닌 안심감, 안전감 등을 측정 지표로서 보행환경이나 범죄예방환경 개선이 이용자의 체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정수진·하지민, 2020; 이형복, 2024).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과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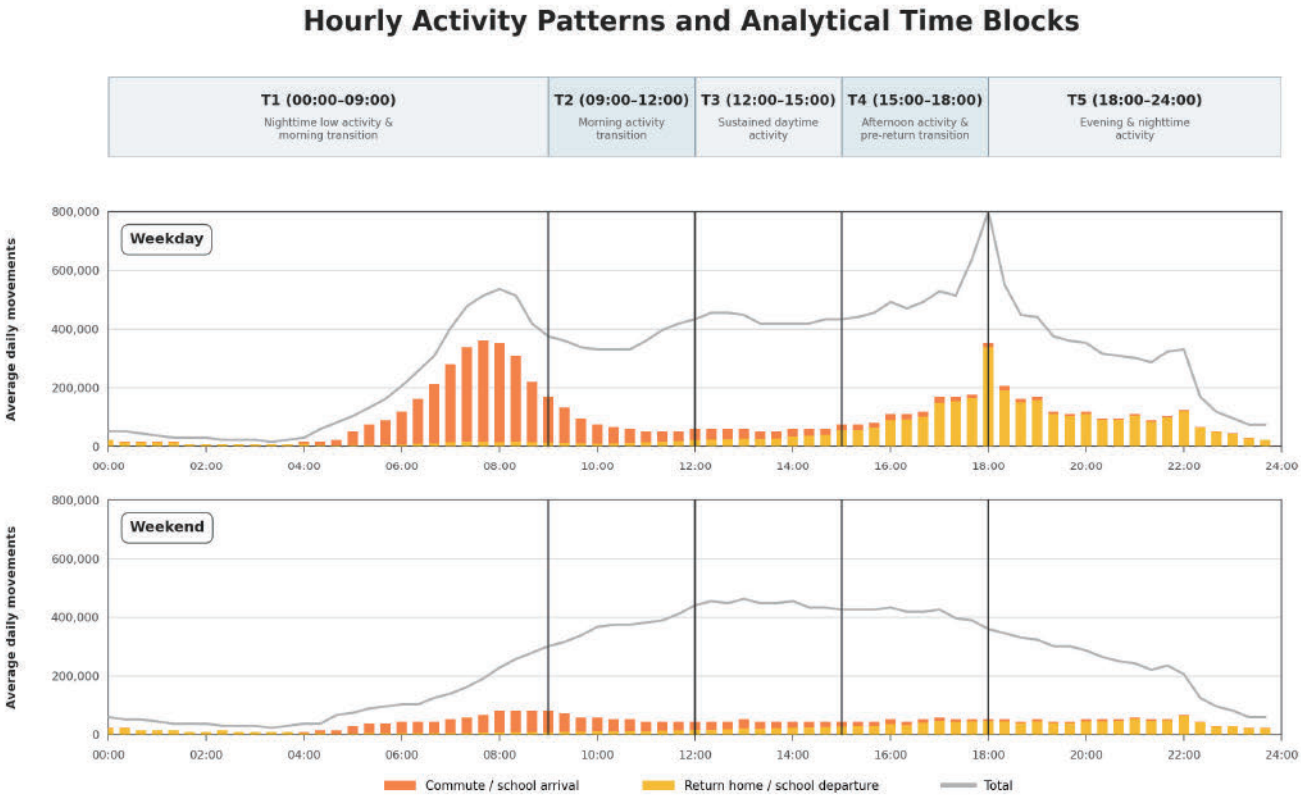


Figure 2. Hourly distribution of living population during daily activities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 또는 인지된 안심(편안함, 안정감 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심리적 안정감'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범죄 두려움' 중심의 지표가 갖는 개념적 제약을 보완하고자 한다.

2) 타 집단에 대한 공존 가능성 지표

본 연구는 특정 시간 및 공간에서 개인이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전통적 공간분리 지표인 노출지표의 계산식을 활용하였다(Duncan and Duncan, 1955; Massey and Denton, 1988; 홍성연·최진무, 2016).

지표 도출을 위해 4개의 생활공간(소비, 여가, 노동, 공공공간)과 5개의 시간대를 설정하고, 주중 및 주말 각각의 시간대별 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 방식은 각 시간대별 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1개 필수, 최대 2개 선택 가능)을 선택하는 것으로, 특정 시간대 개인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조사함으로써 각 공간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해당 지표는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잠재적 공존 가능성을 추정한 간접 지표이다.

해당 응답은 개인 i가 요일구분 d, 시간대 t, 공간 s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 $I_{i,dts}$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각 셀(d, t, s)에서 외국인의 구성비는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q_{dts} = \frac{\sum_{i=1}^{N} 1(I_{i,dts}=1)F_i}{\sum_{i=1}^{N} 1(I_{i,dts}=1)} \quad (1)$$

(집단 F_i = 내국인: 0, 외국인: 1, 요일 가중치 w_d = 주중: 5, 주말: 2)

다음 특정 시간 및 공간에서 개인이 외국인과의 잠재적인 공존 가능성(C)과 이용 빈도(U)에 대한 지표를 구축하였다. 공존 가능성 지표는 개인이 공간 유형 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시간대에서 외국인 집단 응답비율(q)의 가중 평균(w)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C_{is} = \frac{\sum_{d,t} w_d I_{i,dts} q_{dts}}{\sum_{d,t} w_d I_{i,dts}} \quad (2)$$

(단, $\sum_{d,t} w_d I_{i,dts} > 0$)

이용 빈도 지표는 개인이 공간 유형 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시간대의 빈도에 대한 가중합계로, 요일 가중치를 고려한 누적 지표라 할 수 있다. 해당 지표의 계산식은 식 (3)과 같다.

$$U_{is} = \sum_{d,t} w_d I_{i,dts} \quad (3)$$

3) 설문조사 및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연구 대상지인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일원, 김해시 동상동 일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일원 지역 거주민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문항 응답이 누락된 결측치 3명을 제외하여 최종 503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 내국인은 295명, 외국인은 208명이다. 설문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외국인은 대면조사, 내국인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조사는 문항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문항 이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역별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다(Table 2).

4) 분석 자료 구축 및 모형 설정

본 연구의 설문은 개인이 최대 4개의 생활공간에 대한 반복 응답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단위 설문 자료를 생활공간 유형별 자료로 확장하여 구축하였다. 즉 응답자(503명)×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ategory		Total	Sinsa		Dongsang		Daeso	
			Native	Foreigner	Native	Foreigner	Native	Foreigner
Total		503	129	67	91	70	75	71
Gender	M	217	46	22	35	50	29	35
	F	286	83	45	56	20	46	36
Age	20s	140	28	3	27	34	18	30
	30s	170	61	7	27	27	23	25
	40s	89	24	5	21	9	23	7
	50s	60	16	14	15	0	10	5
	60s+	44	0	38	1	0	1	4

생활공간 단위(4개)로 자료가 구축되었으며, 개인이 특정 시간대, 특정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최종 분석의 표본 수는 1,315개이다. 이러한 자료는 반복측정 구조로 모든 관측치가 독립적이라 가정할 경우 표준 오차가 과소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응답자 단위로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로 추정하였다(Cameron and Miller, 2015).

생활공간의 이용 행태는 내·외국인 또는 지역 간 차이 이외에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주요 공간에 대한 이용 여부와 함께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주거 형태 등 공간 이용이나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정감'은 리커트 5점 서열 척도(1=매우 불안, 5=매우 안정)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최저 범주(1점)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공공공간에서는 1점 응답이 관찰되지 않아 범주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였다(Appendix

Table 3.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Description	Summary statistics	Measurement level
Dependent variable	Reassurance	Consumption	Psychological reassurance by daily activity space (0=Anxious, 1=Neutral, 2=Reassured)	0=37 (9.8%), 1=135 (35.9%), 2=204 (54.3%)	Respondent×Activity space
		Leisure		0=42 (11.5%), 1=119 (32.5%), 2=205 (56.0%)	
		Work		0=50 (11.8%), 1=186 (43.8%), 2=189 (44.5%)	
		Public		0=20 (13.5%), 1=46 (31.1%), 2=82 (55.4%)	
Co-presence and usage indices	Co-presence with foreign residents (C)		Weighted mean of the foreigner share among users across selected time slots (range 0–1)	mean=0.444, SD=0.174, min=0.054, max=0.895	Respondent×Activity space
	Usage frequency (U)		Weighted count of reported space use across time slots	mean=9.885, SD=6.554, min=2, max=35	Respondent×Activity space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	Foreigner		Foreigner respondent (0=native, 1=foreigner)	1=208 (41.4%)	Respondent
	Gender		Female respondent (0=male, 1=female)	1=286 (56.9%)	Respondent
	Age		0=less than 40 years old 1=40 years or older	1=193 (38.4%)	Respondent
	Length of residence		Short-term (1=less than 3 years)	1=118 (23.5%)	Respondent
			Mid-term (reference category) (1=3 years to less than 5 years)	1=61 (12.1%)	Respondent
			Long-term (1=5 years or more)	1=324 (64.4%)	Respondent
	Income		Low (1=less than 1 million won/month)	1=158 (31.4%)	Respondent
			Mid (reference category, 1=1 million to less than 5 million won/month)	1=313 (62.2%)	Respondent
			High (1=5 million won or more/month)	1=32 (6.4%)	Respondent
	Level of education		0=others, 1=college degree or higher	1=273 (54.3%)	Respondent
	House type		0=others, 1=apartment	1=149 (29.6%)	Respondent
Study site	Sinsa		Reference site	1=196 (39.0%)	Study site
	Dongsang		Site dummy	1=161 (32.0%)	Study site
	Daeso		Site dummy	1=146 (29.0%)	Study site

Note: 1) Reassurance, C, and U are summarized at the respondent × activity-space level (N=1,315).
2)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at the respondent level (N=503), and study-site variables are assigned according to each respondent's residential study area.
3) C and U are reported on their original scales.

Table 1). 이러한 분포는 점수 변화 지점(컷포인트)별 이항 로짓 진단에서 분리(separation) 및 추정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계수의 과대 추정이나 표준오차의 비정상적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gresti, 2002). 이에 본 연구는 인접 범주를 통합하여, '불안(1-2)-보통(3)-안정(4-5)'의 3수준 서열형 범주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불안=0, 보통=1, 안정=2의 값으로 코딩하였다. 재범주화에 따른 결과의 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5점 척도와 재범주화한 3수준 척도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방향성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났다(Appendix Table 2).

연령과 거주기간은 국내 외국인 관련 제도에서 설정한 연령 및 체류기간 기준을 참고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많은 국내 외국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며(임보영 외, 2023), 해당 비자의 연령 기준은 경우에 따라 50세까지도 가능하나 기본 원칙은 만 18세 ~39세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법제처, 2026). 또한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가 일부 지역에서 고령자 비율이 없거나 낮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연령의 경계 기준을 40세로 설정하였다. 체류 기간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E-9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인 3년(경우에 따라 일부 연장 가능)과 일반귀화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 5년을 장·단기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25; 법무부, 2022).

소득 변수는 응답 범주 중 가장 낮은 값(월 100만 원 미만)과 가장 높은 값(월 5백만 원 이상)을 저소득과 고소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을 고학력 기준으로, 주거형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인 아파트와 이외 주택(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존 가능성(C)과 이용 빈도(U) 두 지표는 분석의 안정성을 위해 중심화하여 분석 변수로 구축하였다. 이용 빈도 지표는 분포의 정규성을 위해 로그 변형하였으며, 분석의 안정성 및 다중공선성 문제 완화를 위해 전체 중심화 방식(각 지풋값에 해당 지표의 평균값을 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중과 주말의 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두 지표 모두 주중일 경우 5, 주말일 경우 2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순서형 자료로 각 값의 차이가 동일한 간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성진욱, 남진, 2019). 이에 본 연구는 순서형 종속변수의 누적 확률을 모델화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식은 식 (4)와 같다.

$$\ln\frac{P(Y_{is}\le j)}{1-P(Y_{is}\le j)}=\alpha_j-X_{is}\beta,\ j=0,1 \tag{4}$$

여기서 α_j는 각 범주 경계의 절편, X_{is}는 응답자 i의 생활공간 s에 대한 설명변수 벡터, β는 추정계수를 의미한다. 비례오즈 가정은 종속변수의 범주 경계 j가 달라지더라도 설명변수의 계수 β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Ⅳ. 분석 결과

1. 일상활동 공간 이용 양상 및 공존 가능성 차이

1) 시간대별 내·외국인의 일상활동 공간 이용 차이: 공간 유형×요일×시간대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활공간 이용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간 유형과 시간대를 교차한 매트릭스 형식으로 차잇값을 제시하였다(Figure 3). 각 셀은 요일(주중, 주말)과 시간대(T1~T5)별 해당 일상활동 공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에서 내국인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붉은색이 진할수록 해당 요일 및 시간대에 해당 공간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Figure 3. Differences in space use between natives and foreigners by time period

Note: Positive values indicate a higher reported space-use rate among foreign residents, whereas negative values indicate a higher rate among native Korean residents.

일상활동 공간의 내·외국인의 이용 가능성 차이를 확인한 결과,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두 공간 모두 주말 T1(00~09시)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T4(15시~18시)에서는 내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두 공간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에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T4 시간대(15~18시)는 주중과 주말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주중에는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말에는 내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공간은 전반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동공간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T2 시간대의 노동공간은 주중에는 내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주말에는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의 폭도 크게 확인되었다. 또한 주중 T5 시간대(18~24시)에는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차잇값은 0.70으로 전체 셀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공간의 유형과 이용 시점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공간과 시간대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과 마주치거나 공존할 기회가 제한 또는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각 생활공간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분석에서는 이러한 이용 패턴의 차이가 실제 인식 수준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외국인 공존 가능성 및 이용 빈도 지표 차이: 공간 유형×지역

다음으로 공존 가능성(C) 및 이용 빈도(U) 지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공간별 각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Table 4).

두 지표에 대해 내·외국인 간 차이를 지역별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심화하기 이전 값을 사용하였다. 우선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C) 지표는 모든 지역의 일상활동 공간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생활공간별 편차는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공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두 지표는 실제 공간에서의 공존이나 이용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능성과 관련된 간접적 지표로서 분석의 결과를 탐색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 빈도(U) 지표는 생활공간별,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소비와 여가공간은 신사 및 동상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국인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노동공간은 대소 지역만 유의미했으며 외국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반면, 공공공간은 동상 지역에서만 내국인의 이용 빈도가 외국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존 가능성(C)과 이용 빈도(U)의 집단 간 차이는 모든 지역과 공간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C와 U가 각각 시간대별 이용자의 집단 구성과 공간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차원의 지표임을 보여준다. 다만 〈Table 4〉의 결과는 지역 및 공간 유형별 차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개별 유의성보다는 전반적인 차이의 방향과 패턴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4. Native-foreigner differences in co-presence and usage frequency indices by region

Index	Space	Site	Native	Foreigner	t
Co-presence with foreigners (C)	C	Sinsa	0.397	0.515	-6.441***
		Dongsang	0.390	0.583	-9.729***
		Daeso	0.378	0.664	-12.059***
	L	Sinsa	0.355	0.538	-9.654***
		Dongsang	0.374	0.583	-10.740***
		Daeso	0.386	0.654	-9.672***
	W	Sinsa	0.301	0.560	-14.732***
		Dongsang	0.308	0.653	-19.530***
		Daeso	0.298	0.639	-20.749***
	P	Sinsa	0.308	0.360	-2.023*
		Dongsang	0.248	0.440	-4.829***
		Daeso	0.291	0.460	-4.977***
Usage frequency (U)	C	Sinsa	5.171	6.866	-2.350*
		Dongsang	4.132	7.100	-3.648***
		Daeso	4.507	3.521	1.533
	L	Sinsa	5.085	6.522	-1.985*
		Dongsang	5.440	8.629	-3.311**
		Daeso	4.173	3.352	1.029
	W	Sinsa	12.783	13.343	-0.343
		Dongsang	13.099	13.529	-0.392
		Daeso	12.813	15.197	-2.303*
	P	Sinsa	2.698	2.701	-0.006
		Dongsang	1.758	0.529	2.961**
		Daeso	1.827	1.169	1.182

Note: 1) * p<0.05, ** p<0.01, *** p<0.001
2) C: Consumption, L: Leisure, W: Work, P: Public
3)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as exploratory comparisons due to multiple group comparisons.
4) Welch's t-statistics are based on the Native − Foreigner difference.

2.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련성

1)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정감'은 리커트 5점 서열척도 응답을 '불안(1-2점)-보통(3점)-안정(4-5점)'의 3수준 서열형 범주 변수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가 순서 척도임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간 유형별 응답자가 반복 응답하는 자료 구조임을 고려하여 응답자 단위 군집화한 강건 표준오차(Cluster-SE)에 기반한 p 값을 통해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 M3는 로그 우도 값(-1125.567)이 가장 컸으며, 우도비 검정 결과 M3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M1-M3: $\chi^2 = 14.022$, $p = 0.029$; M2-M3: $\chi^2 = 10.600$, $p = 0.014$). 또한 AIC 값은 M3가 가장 낮았다. 다만 BIC 값은 M1의 값이 가장 낮았으나, M3 모델은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이 공간 유형별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추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다. 또한 공간별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공간 상호작용항과 공간 유형별 예측확률을 함께 검토하였다.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VIF 값은 4.623으로 통상적 주의 기준인 5보다 낮게 나타나 모델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의 비례오즈 가정(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Brant-type Wald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M3 검정 결과 χ^2는 24.16(p-value = 0.190)으로 비례오즈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여 적정 모델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모델은 M3로 선정하였다(Table 5).

최종 모델(M3)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지역 특성, 공간 유형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부 변수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개인 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외국인 여부는 심리적 안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성별과 연령 변수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 더미변수의 오즈비는 6.175로 비교적 크게 추정되

Table 5. Results of th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1			M2			M3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Co-presence and usage indices	Co-presence (C)	-0.707	0.457	0.493	-0.628	0.474	0.534	-0.407	0.586	0.666
	Usage frequency	-0.113	0.089	0.894	0.015	0.120	1.015	0.012	0.122	1.012
Space variable	space_C				0.239	0.163	1.27	0.263	0.164	1.301
	space_L				0.256	0.161	1.291	0.256	0.164	1.291
	space_P				0.369	0.214	1.446	0.770**	0.262	2.159
	C×space_C							-1.262	0.772	0.283
	C×space_L							-0.908	0.758	0.403
	C×space_P							3.296*	1.574	27.01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	foreigner	1.821***	0.232	6.178	1.807***	0.233	6.092	1.821***	0.234	6.175
	gender	0.260	0.170	1.298	0.266	0.170	1.305	0.266	0.171	1.305
	age_40+	0.005	0.172	1.005	0.005	0.172	1.005	-0.001	0.173	0.999
	income_high	0.165	0.300	1.180	0.172	0.303	1.188	0.157	0.301	1.170
	income_low	0.224	0.188	1.251	0.195	0.192	1.216	0.205	0.191	1.228
	edu_high	-0.099	0.196	0.906	-0.092	0.196	0.912	-0.128	0.200	0.880
	house_apt	0.126	0.194	1.135	0.120	0.195	1.127	0.091	0.196	1.096
	residence_under 3	-0.179	0.269	0.836	-0.186	0.270	0.831	-0.181	0.271	0.835
	residence_over 5	0.082	0.255	1.086	0.088	0.255	1.092	0.094	0.255	1.098
Regional variable	Dongsang	0.335	0.206	1.397	0.349	0.207	1.418	0.381	0.207	1.464
	Daeso	-0.702***	0.195	0.496	-0.679***	0.196	0.507	-0.671***	0.197	0.511
N		1,315			1,315			1,315		
log-likelihood		-1,132.578			-1,130.867			-1,125.567		
AIC		2,295.156			2,297.735			2,293.133		
BIC		2,372.880			2,391.003			2,401.947		

Note: 1) *p <0.05, **p <0.01, ***p <0.001
2) The omnibus Brant-type Wald test did not reject the proportional-odds assumption (χ^2=24.16, df=19, p=0.190). The maximum VIF was 4.623.
3)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at the respondent level. Significance symbols are based on unadjusted coefficient-wise p-values.

었는데, 이는 외국인 응답자가 내국인보다 안정감 범주에 속할 오즈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Brant-type Wald 검정에서는 비례오즈 가정이 기각되지 않았으나, 변수별 진단에서는 외국인 더미의 계수가 범주 경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p=0.012; Appendix Table 4). 또한 본 연구의 내·외국인의 조사 방식의 차이와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치의 크기가 실제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과 응답자 특성 등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OR=6.175는 모든 범주 경계에서 완전히 동일한 효과라기보다 범주 전반을 요약하는 평균적 추정치로서 단순히 집단 차이 크기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사례지역 기반의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 변수는 대소 지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사 지역 대비 대소 지역은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은 범주로 나타날 오즈(odds)가 48.9%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맥락이나 인구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감되는 인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간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공존 가능성이 평균 수준일 때 공공공간은 참조공간인 노동공간보다 높은 안정감 범주에 속할 오즈가 2.159배로 추정되었으며,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은 노동공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참조공간인 노동공간에서 공존 가능성(C)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존 가능성과 공공공간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세 개의 상호작용항에 대해 Bonferroni 및 Holm 보정을 적용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아 공공공간에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adjusted p=0.109; Appendix Table 3). 또한 상호작용항의 신뢰구간이 넓게 추정된 점을 고려해, 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예측확률 및 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간 유형별 예측확률 및 한계효과 분석

상호작용항의 오즈비는 0~1 범위의 비율 지표(공존 가능성 지표, C)와 비선형 모형의 특성으로 직관적 해석이 어렵다. 이에 공존 가능성 지표(C)의 각 분위 값(하위 10%, 50%, 90%)에서의 평균 예측확률(average predictive margins)을 계산하였다(Table 6). 평균 예측확률 값은 각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안정 단계(종속변수 값=2)일 확률을 의미한다. 공공공간에서 안정 단계일 예측확률은 공존 가능성 하위 10%에서 0.473, 50%에서 0.599, 90%에서 0.730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노동, 소비, 여가 공간은 공존 가능성 지표가 높아질수록 안정 단계일 심리적 안정감의 예측확률이 감소하였다. 다만 공공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간의 유형과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아 예측확률 경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able 6. Predicted probability of being "Reassured(R=2)" at co-presence (C) quantiles by space type

Space	C 10%	C 50%	C 90%
Consumption	0.621	0.554	0.476
Leisure	0.604	0.550	0.488
Work	0.475	0.457	0.438
Public	0.473	0.599	0.730

Note: Predicted probabilities are average predictive margins within each space type, holding C at the 10th/50th/90th percentiles and keeping other covariates at their observed values.

Table 7. Marginal change in Pr (Reassured) for a +0.10 increase in C by space type

Space	C baseline (median)	Pr (R=2) at C	Pr at C+0.10	ΔPr per +0.10C
Consumption	0.436	0.554	0.521	-0.033
Leisure		0.550	0.524	-0.026
Work		0.457	0.449	-0.008
Public		0.599	0.657	+0.059

Note: 1) ΔPr is computed as the difference in average predicted probabilities evaluated at C=median (C) and C=median (C) +0.10, by space type.
2) Differences are calculated from unrounded predicted probabilities.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C)이 변화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의 예측확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7). 공공공간에서는 공존 가능성이 0.10 증가할 때 '안정' 범주의 평균 예측확률이 5.9%p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계수에서 관측된 공공공간의 양의 상호작용 방향과 일관된다. 다만 개별 공공공간 상호작용항은 다중검정 보정 후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예측확률의 변화는 확정적인 인과효과가 아니라 본 표본에서 나타난 탐색적 패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비공간, 여가공간, 노동공간, 공공공간으로 구분한 주요 일상활동 공간에서 내·외국인의 이용 응답을 바탕으로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을 계량화하고,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기존 연구 흐름을 확장하여, 일상활동 공간 단위에서 실제 활동이 발생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간 공존의 맥락이 인식(심리적 안정감)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기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공간 관리와 사회통합 정책 수립의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상활동 공간 이용 양상과 공존 가능성은 공간 유형과 시간대별 차이를 보였다. 소비 및 여가공간은 주말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간 이용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노동공간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한편 공공공간은 다른 생활공간에 비해 내·외국인 간 이용 구성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공존 가능성 지표 역시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공간에 비해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공간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 공간이라기보다, 다양한 집단이 일상적으로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련성은 공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참조공간인 노동 공간에서 공존 가능성 지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나, 보정 전 개별 계수 검정에서는 공공공간과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측확률과 한계효과 분석에서도 공공공간은 공존 가능성이 높을수록 '안정' 범주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국인과의 공존 가능성이 그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된다기보다, 공존이 발생하는 공간적 성격에 따라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공간은 앞선 공간별 이용 양상 및 공존 가능성 분석에서 내·외국인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공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이 분석결과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공존 가능성 지표는 실제 대면 접촉이나 동일 장소에서의 동시 체류 등을 직접 측정한 값이 아닌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지표이며 다중검정 보정 이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지 않아, 공존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련 가능성이 관찰된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은 집단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서는 외국인 응답자가 내국인보다 높은 안정감 범주에 속하는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의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이선화, 2008; 민지선·김두섭, 2013; 강수진·서원석, 2018). 다만 외국인 효과의 크기는 종속변수의 범주 경계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조사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외국인 표본이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실제 집단 간 인식 차이와 조사방식 및 표본선택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크기보다 집단 간 차이가 관측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사회·공간적 맥락에 따라 주민의 심리적 인식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 간 공간적 분리나 집중은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 집단 간 관계 구조,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Massey and Denton, 1985; Bohon, 2001; Borja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지역 간 차이 역시 집단의 밀집 정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역 맥락과 결합된 작동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탐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계획과 관리 정책은 주거공간과 함께 내·외국인의 이용양상이 달라지는 일상활동 공간과 시간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공간은 다른 생활공간보다 내·외국인의 이용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양의 관련성이 탐색적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공공공간은 후속 공간진단과 정책검토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접촉의 발생 여부와 상호작용의 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정책은 사회적·공간적 맥락과 주민 인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형 지역(신사)은 비수도권 농촌형 지역(대소)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관찰되었으나 비수도권 도시형 지역(동상)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유사 또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인구사회적 특성, 주민 간 관계 형성 구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이에 맞는 공간관리와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정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치안 중심의 접근을 넘어, 내·외국인의 일상활동 공간 이용 양상과 그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 지역의 공간계획이 기능별 공간 배치에 그치지 않고, 공간 유형별 이용 특성과 공존 가능성이 형성되는 사회·공간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생활공간 단위에서 외국인 집단과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지역의 공간 관리 및 후속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의 사례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수도권과 일부 농어촌·중소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분석 결과를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전체를 포괄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 특성이 다른 3가지 사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여 지역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신사와 대소 간 차이가 도시구조,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 구성, 주거환경 또는 주민 간 관계 형성 구조 중 어느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차이가 지역의 특성보다는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성(인종, 국적, 체류유형 등)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어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통한 결과 해석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간적 범위의 분류 기준은 생활인구 통계 등을 통해 일

상적 활동 시간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지역별 내·외국인의 행태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생활공간 이용 행태와 심리적 안정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으나, 내·외국인 간의 설문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설문 대상의 특성상 연령별 분포가 편향된 지역이나 집단이 있는 한계가 있다. 특히 외국인 응답자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모집단보다 국내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인 응답자의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외국인 더미효과의 크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 특성은 사례지역 기반의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생활공간 분석은 응답자의 시간대별·공간별 이용 여부에 대한 자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간대나 지역별 생활리듬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공간 간 연속성, 현장에서의 상호작용 맥락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존 가능성 지표는 특정 시공간에서의 실제 이용자 수를 직접 관측한 자료가 아니라, 응답자의 시간대별·공간별 이용 여부를 바탕으로 해당 시공간의 외국인 이용 구성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지표라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공공공간의 관측치(N=148)는 다른 공간 유형보다 적어 상호작용항의 신뢰구간이 넓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공간 상호작용항은 다중검정 보정 후 통상적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과는 특정 공간 유형의 확정적 효과라기보다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는 탐색적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지표는 내·외국인이 동일한 공간을 이용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나, 실제 대면 접촉의 발생 여부나 접촉의 지속시간, 빈도, 질적 수준까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간 실제 접촉 그 자체라기보다, 생활공간에서의 공존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 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적 조사와 시계열 자료, 다양한 설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외국인 간 행태 특성과 인식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GPS 추적, 시공간 일지, 참여관찰 등 보다 정교한 방법을 결합하여 생활공간에서의 실제 접촉과 인식 형성 과정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공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특성과 주민 간 관계망의 질적 요인을 결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간적 변화까지 추적함으로써 더욱 현실성 있고 실효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문장 다듬기와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만 ChatGPT 5.6 (OpenAI, 2006)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AI 생성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이 검토·수정·검증하였고, 최종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인용문헌
References

1. 강수진·서원석, 2018. "외국인 거주자 국적이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발전연구」, 27(1): 95-115
Kang, S.J. and Seo, W.S., 2018. "The Effect of Nationality of Foreign Residents on Fear of Crime for Local Resident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and Development*, 27(1): 95-115.
2. 국가데이터처, 2026.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대전.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6. *Status of Foreign Residents by Eup/Myeon/Dong Type and Region*, Daejeon.
3. 권연화, 2024.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주거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외국인 거주자 비교분석", 「국토계획」, 59(3): 166-182.
Kwon, Y.H., 2024. "The Effect of Spatial Vulnerability and Fear of Crim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FCA: Comparison of Native and Foreign Resident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9(3): 166-182.
4. 권유홍, 2011.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 영향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2(4): 209-226.
Kwon, Y.H., 2011. "Estimating Determinants of Leisure Participation of Female Immigrants for Marriage Residing in Urban Area", *Seoul Studies*, 12(4): 209-226.
5. 기획재정부, 2024.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세종.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4. *Three Revitalization Projects for Depopulated Areas*, Sejong.
6. 김도원·변재욱, 2021. "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9(4): 185-232.
Kim, D. and Byeon, J., 2021.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Crime: Evidence from Metropolitan Region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69(4): 185-232.
7. 김명조·이제승, 2024. "한국 내 외국인 이주민의 공간 분포와 군집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40(4): 7-23.
Kim, M. and Lee, J.S., 2024.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Cluster Characteristics of Foreign Migra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40(4): 7-23.
8. 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한국인구학」, 32(2): 115-140.
Kim, S., Kim, S., and Han, K.,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115-140.
9. 김지선·라광현·장현석·박현호, 2019.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V):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m, J.S., Ra, K.H., Jang, H.S., and Park, H.H., 2019. *Research on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Criminal Policy for Guaranteeing Public Safety(Ⅳ): A Study on the Safety Condition and Policy Issues in Foreign Population Concentrated Area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10. 김윤경·문태헌·허선영·정윤영,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12(2): 1-15.
Kim, Y.K., Moon, T.H., Heo, S.Y., and Jeong, Y.Y., 2014.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of Foreigner-Dense Areas",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2(2): 1-15.

11. 김형준·원미리·이정민·채호동·박인권, 2021. "외국인 거주자의 시공간적 분포패턴 및 결정요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토지주택연구」, 12(1): 101-117.
Kim, H., Won, M., Yi, J., Chae, H., and Park, I.K., 2021.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of Foreign Population and their Determinants: Analyzing Seoul's De Facto Population Data", *Land and Housing Review*, 12(1): 101-117.

12. 김희철·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전문인력과 노동자 유형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5): 233-248.
Kim, H. and Ahn, K.H., 2011. "Spatial Distribution and Causes of Foreign Residential Area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Immigration Circuits: Focused on Professional and Working Group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6(5): 233-248.

13. 노성훈, 2013.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151-184.
Roh, S., 2013. "Increased Foreigners and Fear of Crime: Focusing on Group Threat Theor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4(3): 151-184.

14.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Min, J.S. and Kim, D.S., 2013. "Effects of the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4): 71-94.

15.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Park, S. and Jeong, S., 2010.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64: 59-76.

16. 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7(5): 217-230.
Park, S.Y., Kim, J.H., and Choi, M.J., 2012. "Effects of Foreign Workers' Residential Concentration on Neighborhoods: The Case of Garibong-dong and Daelim-dong,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5): 217-230.

17. 박찬영, 2020.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ark, C.Y., 2020. "The Study on Typology of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Foreigners and Urban Environm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8.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추가) 공모 선정 결과」, 과천.
Ministry of Justice, 2022. *Selection Results of the Additional Call for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Gwacheon.

19. 법무부, 2023.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 결과」, 과천.
Ministry of Justice, 2023. *Selection Result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roject*, Gwacheon.

20.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천.
Ministry of Justice, 2024. *The 4th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Gwacheon.

21.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인구이동 패턴 빅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수립…'서울 생활이동' 개발", 서울.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Seoul Develops 'Seoul Life Movement' to Analyze Population Movement Patterns Using Big Data for Policy Making", Seoul.

22. 성진욱·남진, 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토계획」, 54(3): 49-62.
Sung, J.W. and Nam, J., 2019.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Factors of Housing Performan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Public Housing in Seoul",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4(3): 49-62.

23. 손정렬, 2024. "서울 대도시권 외국인 노동자 거주 분포 집중도와 분리도에 대한 공간통계 분석: 국적별 집적 혹은 사회경제적 집적?", 「대한지리학회지」, 59(1): 55-72.
Sohn, J., 2024.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egrees of Concentration and Isolation in Residenti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gglomeration by Nationality or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9(1): 55-72.

24. 송유진, 2013.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3), 1-19.
Song, Y.J., 2013. "Effects of Contact on Attitudes toward Foreign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3): 1-19.

25. 오병록, 2014.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15(3): 1-18.
Oh, P.R., 2014. "A Study on Travel Characteris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on for the Size of the Neighborhood Unit by Using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in Seoul", *Seoul Studies*, 15(3): 1-18.

26. 오아름·유현정, 2009. "민속지학적 접근을 통해 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생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49-68.
Oh, A. and Yoo, H.J., 2009. "Consuming Life of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through Ethnographic Approach",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5(1): 49-68.

27. 윤진희·권오규·마강래, 2014.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39-54.
Yoon, J., Kwon, O.K., and Ma, K.R., 2014. "Changing Spatial Distribution of Chinese Population in Seoul: A Comparison between Korean-Chinese and Non-Korean Chines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6(2): 39-54.

28. 이금숙·박소현, 2018. "스마트매체와 결합된 일상 활동장소 정보를 이용한 도시 이동성 변화: 미디어패널조사 미디어다이어리 데이터를 토대로", 「대한지리학회지」, 53(5): 745-760.

Lee, K. and Park, S., 2018. "Changes in the Urban Mobility by Utilizing Activity Place Information for Everyday Life Integrated with Smart Media: Based on the Media Panel Diary Dat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3(5): 745-760.

29.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Lee, S., 2008. "Native Residents' Strategies Responding to Foreign Migrant Workers' Influx: A Case Study of Wongok-dong, Ansan", *Cross-Cultural Studies*, 14(2): 123-166.

30. 이승은, 2018. "비전문 외국인력의 시·공간적 이동패턴과 체류공간의 비교 연구: E-9 비자와 H-2 비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ee, S.E., 2018.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 of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and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pace for Staying",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31. 이진영·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85-100.
Lee, J.Y., and Nam, J., 201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oreigners' Residential Distrib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1): 85-100.

32. 이혜경, 201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주거·소비·여가공간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33-173.
Lee, H., 2012. "A Study on the Foreign Immigrants' Life Space: Focusing on the Factors of Dwelling Space, Consumption Space, and Leisure Space",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1): 133-173.

33. 이형복, 2024. "CPTED 사업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3): 143-170.
Lee, H.B., 2024. "The Study on Installation Standards for Solar Road Studs in CPTED Project",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3(3): 143-170.

34. 임보영·최창성·허재석, 2023.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Im, B., Choi, C., and Her, J., 2023. *A Study on Ethnic Enclaves Through the Lens of CPTED*, Sejo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35. 전성윤·전희정, 2024.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동네·도시·국가소속감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40(4): 57-74.
Jeon, S. and Jun, H.J., 2024. "Factors Influencing Sense of Community Among Foreigners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Between Neighborhood, City, and National Level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40(4): 57-74.

36. 정수진·하지민, 2020. "안전감을 주는 주거지역 보행환경을 위한 조명 색온도 시뮬레이션 및 EEG 분석", 「디자인융복합연구」, 19(4): 131-143.
Jung, S. and Ha, J., 2020. "Lighting Color Temperature Simulation and EEG Analysis on Perceived Safety in Pedestrian Environment", *Design Convergence Study*, 19(4): 131-143.

37. 정지은·하성규·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117-129.
Jeong, J., Ha, S.K., and Jun, M.J., 2011.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Location Choice for Foreign Resi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6(6): 117-129.

38. 정현주, 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3): 567-585.
Jung, H., 2020. "Civic Stratification and Spatial Division of Immigrants in Korean 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Migrant Workers' Visa Status Based on Ethnicity and Gend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9(3): 567-585.

39. 조월·하재현·이수기, 2021. "서울시 생활인구의 시간대별 혼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국토계획」, 56(1): 22-38.
Cao, Y., Ha, J.H., and Lee, S., 2021.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Hourly-Based Mixed Level of De Facto Population in Seoul,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6(1): 22-38.

40.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Jo, H.M., 2006. "Formation of Ethnic Community in the Concentrated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A Case Study of Igok-Dong, Dalseo-Gu, Daegu", *Region and Geography*, 12(5): 540-556.

41.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Choi, B.D., 2009. "Spatial Characteristics of Workplaces and Everyday Life Spaces of Im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2(4): 319-343.

42. 최우성·하지민·홍성연, 202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시기의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 변화: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비교", 「한국지도학회지」, 21(1): 53-64.
Choi, W., Ha, J., and Hong, S.Y., 2021. "Changes in the Level of Ethnic Segregation Since the Spread of COVID-19: A Case Study of Garibong-dong and Daerim 2-dong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21(1): 53-64.

43. 하성규·마강래·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Ha, S.K., Ma, K.R., and Ahn, A.R., 2011. "A Stud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Patterns of Foreign Population in Seoul", *Seoul Studies*, 12(3): 91-105.

44. 한국교통연구원, 2021. 「전국여객 O/D 조사」, 세종.
Korea Transport Institute, 2021. *National Passenger O/D Survey*, Sejong.

45. 행정안전부, 2025a.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5a. *2024 Status of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Sejong.

46. 행정안전부, 2025b.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세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5b.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aches 2.58 Million, Accounting for 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Continuing to Rise", Sejong.

47. 허재석·임보영, 2025.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의 범죄 두려움 차이에 관한 연구: 내·외국인 간 및 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60(1): 43-65.
Her, J. and Im, B., 2025.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Fear of Crime among Residents of Ethnic Enclaves: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Native Koreans and Foreigners and between Region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60(1): 43-65.

48. 허정원·장주영, 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공간과 사회」, 73: 99-137.
Huh, J. and Jang, J., 2020. "Mapping Community-level Mobility Changes of Koreans and Immigrants Using Bigdata of "de Facto Population of Seoul": Six Ethnic Enclaves in Seoul Under COVID-19 Epidemic", *Space and Environment*, 30(3): 99-137.

49. 허권, 2021.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31(3): 304-337.
Heo, K., 2021. "A Critical Analysis on the Political and Spatial Changes in Ansan", *Space and Environment*, 31(3): 304-337.

50. 홍성연·최진무, 2016. "활동공간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공간적 분리의 측정", 「국토지리학회지」, 50(3): 361-371.
Hong, S. Y. and Choi, J., 2016. "Measuring Spatial Segregation in Activity Space",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50(3): 361-371.

51. Allport, G.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Pub. Co.

52. Agresti, A., 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53. Blalock, H.M., 1967. "Status Inconsistency, Social Mobility, Status Integration and Structur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5): 790-801.

54. Bohon, S.A., 2001. *Latinos in Ethnic Enclaves: Immigrant Workers and the Competition for Jobs,* New York: Routledge.

55. Bontenbal, I., 2023. "The Good, the Bad and the Advantageous: Migrants' Attitudes towards Other 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4: 101802.

56. Borjas, G.J., 2002. "Homeownership in the Immigrant Pop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448-476.

57. Cameron, A.C. and Miller, D.L., 2015.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317-372.

58. Campbell, D.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Edited by Levine, D., 283-31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59. Duncan, O.D. an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

60. Fischer, A.M., 2012. "Immigrant Language Barriers and House Pric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42(3): 389-395.

61. Fotios, S. and Castleton, H., 2016. "Specifying Enough Light to Feel Reassured on Pedestrian Footpaths", Leukos, 12(4): 235-243.

62. Fotios, S., Monteiro, A.L., and Uttley, J., 2019. "Evaluation of Pedestrian Reassurance Gained by Higher Illuminances in Residential Streets Using the Day-Dark Approach", *Lighting Research & Technology*, 51(4): 557-575.

63. Fotios, S., Unwin, J., and Farrall, S., 2015. "Road Lighting and Pedestrian Reassurance after Dark: A Review", *Lighting Research & Technology*, 47(4): 449-469.

64. Järv, O., Müürisepp, K., Ahas, R., Derudder, B., and Witlox, F., 2015. "Ethnic Differences in Activity Spaces as a Characteristic of Segregation: A Study Based on Mobile Phone Usage in Tallinn, Estonia", *Urban Studies*, 52(14): 2680-2698.

65. Massey, D.S. and Denton, N.A., 1985. "Spatial Assimilation as a Socioeconomic Out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1): 94-106.

66. Massey, D.S. and Denton, N.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67. Mussa, A., Nwaogu, U.G., and Pozo, S., 2017. "Immigration and Housing: A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35: 13-25.

68. Park, Y.M. and Kwan, M.P., 2018. "Beyond Residential Segregation: A Spatiotemporal Approach to Examining Multi-Contextual Segregation",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71: 98-108.

69. Pettigrew, T.F. and Tropp, L.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70. Portes, A.,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71. Sanchis-Guarner, R., 2023. "Decompos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House Pric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00: 103893.

72. Silm, S. and Ahas, R., 2014. "The Temporal Variation of Ethnic Segregation in a City: Evidence from a Mobile Phone Use Dataset", *Social Science Research*, 47: 30-43.

73. Stephan, W.G., 2014. "Intergroup Anxiet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3): 239-255.

74. Tropp, L.A. and Pettigrew, T.F., 2005.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Prejudice among Minority and Majority Status Groups", *Psychological Science*, 16(12): 951-957.

75. Uttley, J., Gorjimahlabani, S., and Fotios, S., 2024. "Defining Daytime in the Day-Dark Approach to Measuring the Pedestrian Reassurance of Road Lighting", *Lighting Research & Technology*, 56(5): 469-480.

76. 고용노동부, 20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18조", 법제처, https:// 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C%A0%81%EB%B2%95#undefine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5.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rticle 1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

EC%A0%81%EB%B2%95#undefined.

77. 법무부, 2022. "국적법 제5조 1항",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Ministry of Justice, 2022. "Nationality Act Article 5(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C%A0%81%EB%B2%95#undefined.

78. 법제처,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2026.7.17 읽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42&ccfNo=2&cciNo=1&cnpClsNo=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d., "Employment Procedures for Foreign Workers with E-9 Status of Stay", Accessed July 17, 2026. Easy to Find, Practical Law, 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42&ccfNo=2&cciNo=1&cnpClsNo=2.

Date Received 2026-01-05
Reviewed(1st) 2026-03-02
Date Revised 2026-04-21
Reviewed(2nd) 2026-05-25
Date Accepted 2026-05-25
Final Received 2026-09-01

부 록
Appendix

Appendix Table 1.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five-point reassurance scale by activity-space type

Space	N	1: Very anxious	2	3: Neutral	4	5: Very reassured
Consumption	376	1 (0.3%)	36 (9.6%)	135 (35.9%)	176 (46.8%)	28 (7.4%)
Leisure	366	4 (1.1%)	38 (10.4%)	119 (32.5%)	159 (43.4%)	46 (12.6%)
Work	425	4 (0.9%)	46 (10.8%)	186 (43.8%)	168 (39.5%)	21 (4.9%)
Public	148	0 (0.0%)	20 (13.5%)	46 (31.1%)	70 (47.3%)	12 (8.1%)

Appendix Table 2. Sensitivity analysis using the three-category and original five-point outcomes

Variables		3-Category			5-Point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Co-presence and usage indices	Co-presence (C)	-0.407	0.586	0.666	-0.172	0.550	0.842
	Usage frequency	0.012	0.122	1.012	0.113	0.116	1.119
Space variable	space_C	0.263	0.164	1.301	0.342*	0.158	1.408
	space_L	0.256	0.164	1.291	0.429**	0.162	1.536
	space_P	0.770**	0.262	2.159	0.816***	0.231	2.263
	C×space_C	-1.262	0.772	0.283	-1.381*	0.663	0.251
	C×space_L	-0.908	0.758	0.403	-1.119	0.728	0.327
	C×space_P	3.296*	1.574	27.010	3.023*	1.346	20.548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	foreigner	1.821***	0.234	6.175	1.711***	0.242	5.537
	gender	0.266	0.171	1.305	0.310	0.166	1.364
	age_40+	-0.001	0.173	0.999	-0.009	0.176	0.991
	income_high	0.157	0.301	1.170	0.155	0.310	1.167
	income_low	0.205	0.191	1.228	0.250	0.182	1.283
	edu_high	-0.128	0.200	0.880	-0.151	0.200	0.860
	house_apt	0.091	0.196	1.096	0.219	0.199	1.245
	residence_under 3	-0.181	0.271	0.835	-0.275	0.261	0.759
	residence_over 5	0.094	0.255	1.098	-0.004	0.253	0.996
Regional variable	Dongsang	0.381	0.207	1.464	0.308	0.207	1.361
	Daeso	-0.671***	0.197	0.511	-0.724***	0.192	0.485

Note: *p <0.05, **p <0.01, ***p<0.001

Appendix Table 3. Multiple-comparison adjustments for space interaction terms

Interaction term	β	SE	Raw p	Bonferroni-adjusted p	Holm-adjusted p
C×Consumption	-1.262	0.772	0.102	0.307	0.205
C×Leisure	-0.908	0.758	0.231	0.694	0.231
C×Public	3.296	1.574	0.036	0.109	0.109

Appendix Table 4. Variable-specific Brant-type diagnostics

Variable	Wald χ^2	p
Co-presence (C)	1.273	0.259
Usage frequency	0.010	0.921
Consumption space	1.162	0.281
Leisure space	1.301	0.254
Public space	0.063	0.802
C×Consumption	2.248	0.134
C×Leisure	0.119	0.731
C×Public	0.061	0.804
Foreign resident	6.293	0.012
Female	0.446	0.504
Age 40+	1.201	0.273
High income	0.353	0.553
Low income	0.138	0.710
College degree+	0.073	0.787
Apartment	0.066	0.798
Residence <3 years	0.009	0.924
Residence ≥5 years	0.118	0.731
Dongsang	0.152	0.697
Daeso	0.518	0.472
Omnibus	24.163 (df=19)	0.190